

제주 소나무숲 또 '병해충 전쟁' 치르나

봄철 축사·건설현장 '추락 주의의'

고용노동부 "지붕 개보수 작업 과정 사고 이어져"

산남지역 오름 포함 평화로서 소나무 고사 현상 관측 '솔껍질깎지벌레'로 최종 판명시 서귀포 첫 피해 사례 외래병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도 지난달 제주 침투

을 발견돼 해송림을 초도화 시킨 뒤 2018년 제주 본섬까지 침투했지만 이후 고사 규모는 매해 수백 그루에 그쳤다.

피해 의심 지역에서도 지상 방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래 병해충인 소나무허리노린재도 제주에 처음 침투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말 제주시 연동수목원 일대와 도평동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 성충을 발견했다. 이 벌레는 북미 원산의 허리노린재과 곤충으로, 잣나무와 소나무 등 주로 침엽수 열매 수액을 빨아 먹는다. 재선충이나 솔껍질깎지벌레처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진 않지만 잣나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잣 생산 지역에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해충이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하지만 제주에는 잣 생산 농가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속보=제주 소나무숲이 재선충에 이어 또 다른 산림 병해충과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최근 제주시 서부지역 소나무를 집단 고사시킨 솔껍질깎지벌레가 서귀포시 지역에도 첫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세력을 확장할 조짐이고, 외래 병해충 중 하나인 소나무허리노린재도 제주에서 처음 발견됐다.

2일 제주도와 도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이돈이오름과 표선면 각지오름, 평화로 일대 등에서 솔껍질깎지벌레 개체가 발견됐다. 또 이들 지역 소나무 일부는

나무 중간부터 누렇게 말라 죽는 등 솔껍질깎지벌레에 의한 피해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피해 원인이 솔껍질깎지벌레에 의한 것인지 판명하기 위해 세계유산본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고사 원인이 솔껍질깎지벌레로 최종 판명되면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 벌레에 의한 첫 피해 사례가 된다"고 했다.

솔껍질깎지벌레는 재선충과 함께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3대 산림 병해충으로 나무 수액을 빨아 먹으며 서서히 말라 죽게 한다. 이 벌레는 지난 2014년 추자도에서 처

그러나 올해는 피해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올해 초 제주시 환경면 2개 마을에서 소나무 4900여 그루가 솔껍질깎지벌레에 의해 집단 고사한 데 이어, 환경면과 인접한 한림읍에서도 이 벌레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는 고사 현상이 관측됐다. 산림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면·한림읍 일대에서 오는 4월 말까지 고사목 제거와 함께 차당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지상 방제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솔껍질깎지벌레는 산북 지역에 주로 출현했는데 이번에 산남 지역인 서귀포시에서도 비슷한 피해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며 "조만간 서귀포시

최근 3년 전국서 125명 사망

봄철 축사와 건설현장 등 지붕 개보수 작업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이어지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붕 작업 추락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총 125명으로 이는 비계 작업 사고 사망자 1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축사 37명, 공장 28명, 주택·상가 20명 등이 지붕공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며 쌓인 눈이 녹아 축사와 공장 등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봄철에 28%의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위험 주의보를 발령, 현장에 대한 안전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농가를 자주 방문하는 농·축협지점을 통해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해 주요 사고 사례와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지붕공사 현장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지붕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안전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올겨울 제주시 수도 계량기 200여개 동파

시, 수도요금 감면 실시

제주시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수도관 등 동파 피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올해 1월 한파 기간에 발생한 수도 사용 관련 동파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 영하권 날씨가 4-5일 동안 지속되면서 2월 7일 기준 212곳에서 수도 계량기가 동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면 희망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리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업자 수리 완료 확인서 또는 자체 수리 시범품 구입 영수증을 구비해 동지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의 경우엔 누수가 발생한 달의 사용량을 전월 정상 사용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해 최대 1개월간의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2016년, 2018년, 2021년에도 수도관 등 동파 피해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이 이뤄졌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2공항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2공항 주민투표 국토부에 요구하라"

제2공항비상도민회 기자회견 통해 오 지사에 촉구

제주제2공항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줄곧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며 "도민결정권이 최대한 담

보되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주민투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으로 커진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이라며 "해묵은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낼 마침표가 바로 제2공항 주민투표"라고 주장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중고 가전제품 창고 화재

2일 0시41분쯤 서귀포시 도평동 소재 중고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창고 약 427.68㎡와 중고 가전제품과 각종 공구류 등이 소실됐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밖에 있던 가전제품에서 화염을 봤다는 목격자 신고 등을 토대로 이날 화재와 관련 외부에서 발생해 내부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재산 피해를 집계하고 있다. 백금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견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견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균, 팔삭, 세이불,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원로 10-0102-2023-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협과 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름	민두름 참두름	가시 없는 민두름, 참두름, 정강두름은 볼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내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엽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엽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옴,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가씨가 알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누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감을농원 | 묘목상담 : 010-3121-7676 |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주시 888동 화성로25 / 농림 312-3121-7676-91(매일 9시-20시)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원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탕빛1호, 병유자, 아미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요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